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영어 노출시간과 비용

이윤진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2009년도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연구에서 영어학원 이용 241 사례를 추출하여 유아의 영어 노출시간과 비용을 분석하였다. 영어학원 이용 가정의 월 평균 소득은 400~600만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며, 남과 다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받고자 해당 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과반수 이상이었다. 이용 시작 시기는 만 3~4세경이며 반년 이상 해당 학원을 이용하고 있었고, 향후에도 계속해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주일에 약 25시간 정도의 교습을 받는 비율이 가장 높고, 영어 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하는 경우 27시간 정도 영어를 접하게 된다. 월 평균 교습비는 약 60.6만원, 영어 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 추가 이용 시에는 100만원까지 지출된다.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 열풍을 잠재우고 바람직한 영어교육 정책 수립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영어교육 실시 시기의 적절성 연구와 함께, 조기 영어교육 열풍의 근원적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언제부터가 우리사회에는 유치원과 보육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오전부터 운영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등장하기 시작했으나, 근래에는 이러한 영어학원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 배경에는 저출산 등의 사회적 이유도 크게 작용하지만, 좀 더 직접적인 이유로는 2008년도 정부가 발표한 영어몰입교육 정책을 꼽을 수

있겠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정규교육과정에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있자—결국 시행되지는 않았지만—그 여파로 일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일부 유아(주로 만 5세 유아)들이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어학원으로 옮겨가면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원아모집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영어학원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교역의 수강료로 알려져있는 유아

〈 표 1 〉 설문조사 개요

조사지역	• 서울, 경기: 전국적으로 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면서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운영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함.
조사방법	• 모집단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에 해당 영어학원 인근에서 대상 표집조사 • 구조화된 설문지 조사
조사대상	•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가구 중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오전부터 반일제 이상으로 이용하고 있는 유아의 부모 또는 주양육자(241명)

대상 영어학원을 이용한다는 것은, 미술학원이나 놀이학원 등의 유아학원들보다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시간이 많다는 것이며 이는 영어몰입 환경에 노출되는 시간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처럼 EFL(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환경에서는 ESL(English as a Second language) 환경이란 특수한 상황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환경 조성을 위해 기본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그 비용은 영어 투입시간에 비례해서 상승되기 마련이다.

이에 2009년 본 연구소에서 기본과제로 수행한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연구에서 오전부터 영어를 교수용어로 수업을 진행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이용 241 사례만을 추출하여 이러한 영어학원 이용 유아들의 영어 노출시간 정도와 이에 드는 비용을 분석하였다.

2. 유아 영어학원 이용 가정 특성

영어학원 이용 241명 유아 중에서 만 5세가 155명으로 전체의 64.3%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다.

2008년 현재 만 5세아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 이용율은 전국 평균 85.7%이지만 서울은 71.4%, 경기도는 80.1%로 이 두 지역은 전국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 이용율이 가장 낮았다. 또한, 서울과 경기도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하다(표 1 참조). 서울과 경기도의 만 5세 유아들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총 이용율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주된 이유를 영어학원에서 찾을 수 있겠다. 다시 말해서, 서울과 경기도의 유치원과 보육시설 미이용 만 5세 유아들은 영어학원을 다닐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영어학원 이용 가정의 월평균 소득인 300만원~450만원 미만 구간이 32.0%, 이와 근소한 차이로 450만원~600만원 미만이 31.5%로 집계되었다. 이들 두 구간을 합치면 63.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들 가정의 어머니가 전업 주부의 비율이 75.1%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이들 가정의 주된 소득원은 아버지의 근로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벌이 소득으로 월평균 400~600만원은 상당히 높은 소득수준이다(표 2 참조).

1)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유아학원의 종류로서 영어학원 외에 미술학원, 놀이학원을 포함하였으며 유아학원 이용 가구 대상 설문조사 표본집단은 총 445사례이었음. 이와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2009)의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를 참조하길 바람.

아버지의 직업은 사무기술직인 58.3%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 이 전문/자유직 13.7%, 자영업 15.4%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진술한 월평균 소득과 관련지어 본다면, 여기서 사무기술직 및 자영업 직업이란 안정적이고 고소득군의 직업인 것으로 짐작된다. 의사, 변호사 등의 전문/자유직의 비율을 포함해서 유아 영어학원 이용 가정의 아버지들 절대 다수가(95.4%) 사회적 직위가 높고, 소득이 높은 안정적인 직업을 갖고 있었다.

어머니는 75.1%가 전업주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해야 할 사실은 나머지 24.9%의 취업모 직업군이다. 사무기술직 12.0%, 전문/자유직이 8.3%로서, 약 20.3%의 취업모가 남편과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고소득군의 직업일 것으로 짐작된다. 맞벌이 가정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꽤 많은 중상층 이상의 가정으로 볼 수 있다.

3. 영어학원 이용 이유와 선택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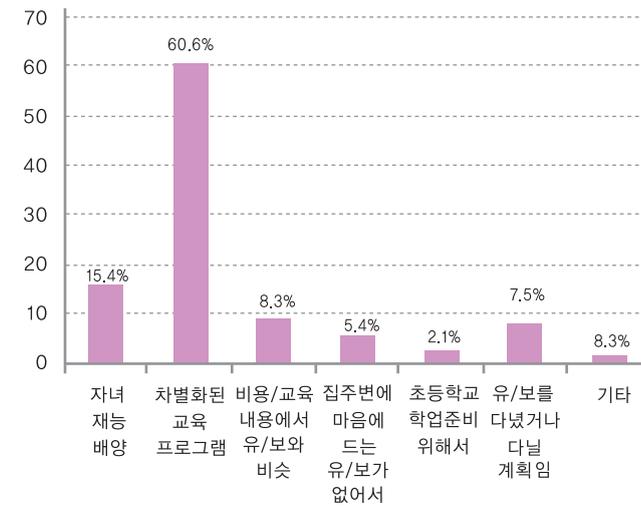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보내게 되면 교역의 교습비를 지불해야 하며, 또 정부로부터 보육료나 교육비 등의 지원혜택이 전문하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크다. 그렇다면 교역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 표 2 〉 영어학원 이용 유아 및 가정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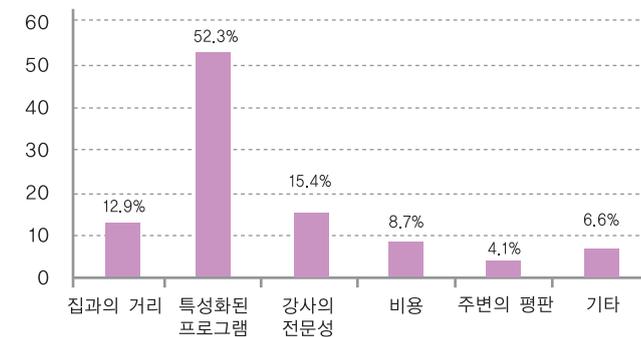
구분	단위: % (명)		
	부	모	
자녀연령	만 3세(21)	8.7	100.0(241)
	만 4세(65)	27.0	
	만 5세이상(155)	64.3	
	계		
월평균 가구소득	150~300만원 미만(14)	5.8	100.0(241)
	300~450만원 미만(77)	32.0	
	450~600만원 미만(76)	31.5	
	600~800만원 미만(43)	17.8	
	800~1000만원 미만(17)	7.1	
	1000만원 이상(7)	2.9	
	무응답(7)	2.9	
부모 직업	부	모	
농/수축산업	0.4(1)	1.7	
자영업	15.4(37)	1.2	
판매/서비스직	1.2(3)	0.8	
일반직업직	0.4(1)	-	
기능/숙련공	0.8(2)	-	
사무기술직	58.9(142)	12.0	
경영/관리직	8.3(20)	-	
전문/자유직	13.7(33)	8.3	
전업주부	-	75.1	
기타	0.8(2)	-	

어린 자녀를 영어학원을 보내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대신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이유로서 '남과 다른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주고 싶어서'가 60.6%로 과반을 훨씬 넘는 부모가 꼽았다. 그 다음 아이의 재능을 어렸을 때부터 전문적으로 키워주기 위해서(15.4%), 비용이나 교육내용면에서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과 별 차이 없어서(8.3%), 유치원/보육시설을 이전에 다녔거나 다닐 계획이므로



[그림 1] 유치원과 보육시설 대신 해당 영어학원 이용 이유



[그림 2] 해당 영어학원 선택기준

(7.5%), 집 주변에 마음에 드는 유치원/보육시설이 없어서(5.4%), 초등학교 대비 선행학습 차원에서 학원이 더 적합한 것 같아서(2.1%), 기타(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이유와 연결하여, 해당 영어학원 선택기준 1순위 역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52.3%로 가장 많았다. 여기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이란 영어학원이란 점을 감안해서 볼 때, '영어프로그램'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가 일찍부터 '영어를 경험하고 배우기 위해 해당 학원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정규교육·보육과정에서 영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것이 원칙이다.' 물론 현실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영어를 안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영어에 대한 갈증이 높은 학부모들에게 현재 유치원과 보육시설에서 부분적으로 제공되는 영어교육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자녀에게 영어를 좀 더 많이 집중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원하던 강사가 있으며—적어도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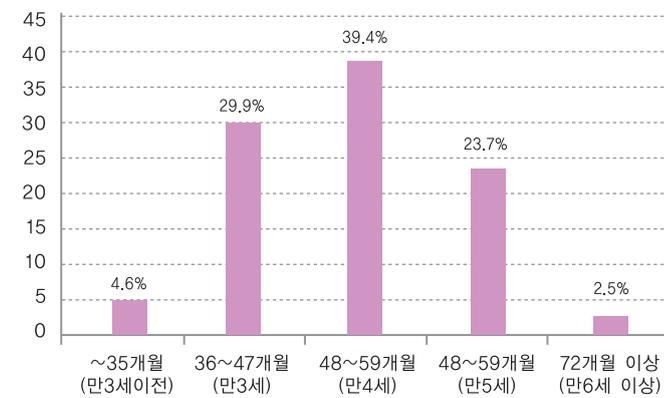
교포 또는 한국인 교사가 있는—, 교수용어가 영어인 영어학원을 선택한다고 하겠다.

2) 그러나 현실적으로 많은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영어교육을 특별활동프로그램 방식 등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김은영·조혜주·김경미(2009) 연구에 의하면 사립유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들 중에서 미술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영어였다. 한편, 학부모가 선호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 종류로는 영어가 자녀연령을 불문하고 1순위로 나타났다(김은영·조혜주·김경미(2009), 유치원 특별활동 운영 실태보고, 육아정책개발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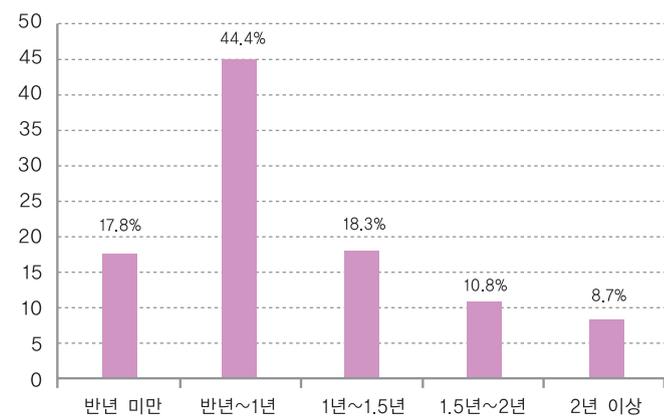
4. 영어 노출시간

가) 이용시기와 이용기간

해당 영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한 시기는 만 4세가 39.4%로 가장 많았고, 만 3세가 29.9%로 그 다음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의 영어학원 이전에 다른 영어학원을 다닌 적도 있을 가능



[그림 3] 해당 영어학원 처음 이용 시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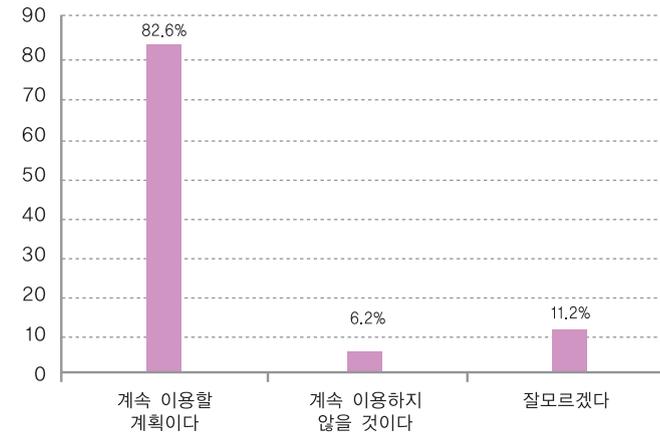


[그림 4] 해당 영어학원 이용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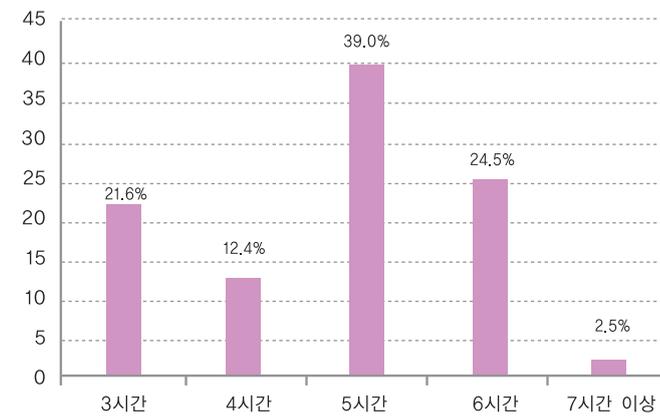
성을 배제하더라도, 영어학원 이용 시기가 빠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학원 이용기간은 일년이 채 안 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용기간이 반년~1년이 44.4%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반년 미만으로 17.8%를 차지하였다. 이는 설문조사 실시시기와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개 학원들이 학기초 개념으로 3월 개강을 많이 하는데, 설문조사를 실시한 시기가 당해(2009년) 8월 무렵이었으므로 1년 미만 또는 6개월 미만이 주로 많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년 이상~2년 미만의 비율이 약 29%이며, 여기에 2년 이상 이용했다는 8.7%의 비율을 합친다면 약 37.7%로서, 해당 영어학원을 1년 이상 이용하는 유아도 적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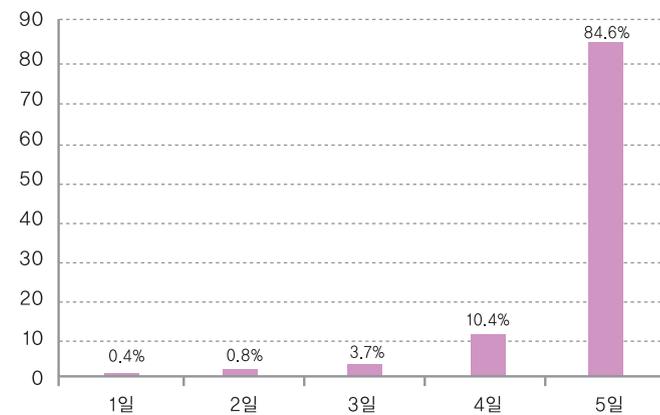
앞으로 '해당 영어학원을 계속 이용할 계획이다'라고 응답한 경우가 82.6%로서, '이용하지 않을 것이다' 6.2% 보다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해당 영어학원의 이용기간은 더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현재 영어학원을 가장 많이 다니고 있는 만 4세아가 만 5세가 되어도, 계속해서 영어학원을 다닐 가능성이 높다.



[그림 5] 향후 해당 영어학원 이용 여부



[그림 6] 하루 이용 시간



[그림 7] 주당 이용 일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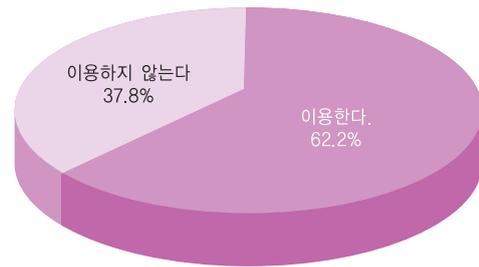
나) 하루 이용 시간과 주당 이용 일수

해당 영어학원의 하루 이용 시간은 5시간이 39.0%, 6시간이 24.5%, 3시간이 21.6%로 유치원 개념을 차용한다면 반일제(하루 3시간~5시간) 정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영어학원을 종일제로 이용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해당 영어학원의 주당이용일수는 일주일에 5일 이용이 84.6%로 절대적으로 많았다. 앞서 언급한 하루 이용시간과 주당이용 일수를 정리해서 보면, 영어학원 이용 유아는 주 5회(월~금)를 학원에 가며 하루 이용시간은 대략 5~6시간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이용시간으로 봤을 때 이들 영어학원에서는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도 영어학원을 유치원과 보육시설과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나, 조금 다른 점은 종일제 이용 유아가 거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자녀를 영어학원에 보내는 취업모는 영어학원이 종일제 기능이 미비하기 때문에 자녀의 보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가의 육아도우미 인력이나 기타 학원 이용

가능성이 높다.

취업모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영어학원 이용 유아들 중에서 현재 다른 사교육을 한다는 비율이 62.2%(150명)로 다른 사교육을 하지 않는다 37.8%(91명) 보다 더 많았다.



[그림 8] 기타 사교육 이용 여부

그러나 기타 사교육을 하는 150명에게 이용하는 사교육 종류를 묻는 항목에서 음악학원이 15.8%, 미술학원 14.9%, 학습지/교구교육 10.4%, 체육학원 10% 순으로 응답하였으며, 영어학원 이용은 1.7%에 불과하였다. 해당 영어학원이 하루 5시간 이용하는 주 학원인 만큼, 추가로 이용하는 학원 종류는 영어학원 이용 비율은 극히 낮고, 음악·미술·체육 등 예체능 계열 학원을 해당 영어학원을 마치고 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학원 이용 유아들은 영어 뿐 아니라 다양한 예체능의 분야들을 골고루 배우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모든 교육이 사교육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이 새삼 놀랍다.

다) 영어 관련 특별활동 이용 시간

해당 영어학원의 기본 교습과정외에 추가 비용을 지불하고 이용하는 특별활동 프로그램들 중에서 영어 관련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유아는 17.0%(41명)로 그다지 많지 않으나, 미술관련(16.2%) 및 체육관련(12.4%) 등 다른 프로그램 이용 유아들과 비교해서는 가장 많았다. 다시 말해서 오전에 기본 교습과정으로 영어 수업을 받고, 오후에 추가로 영어 수업을 받는 유아가 다른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유아들보다 많았다.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이들이 추가로 접하게 되는 영어시간을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표 3>의 영어관련 특별활동 이용 현황을 보면, 주당 이용 회수는 평균 3.6회이며 한 1회당 수업시간은 35.9분이고, 이에 드는 추가 비용은 월 평균 37.4만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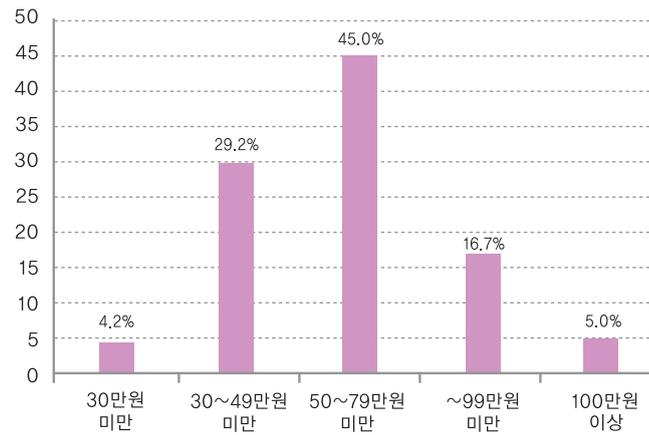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영어학원 이용 유아들의 영어에 노출되는 시간을 계산해 보자. 영어학원 이용 현황에서 비율이 가장 높은 경우들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기본 교습과정이 제공되는 시간은 주 5일에 하루 5시간(300분)으로 주당 약 25시간(1,500분)을 영어에 노출되어 있다고 하겠다. 한 달(20일 기준)이면 100시간(6,000분), 1년이면 대략 1,200시간 정도 영어를 접하고 있는 것이다.

< 표 3 >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현황

이용률	주당 이용 횟수	1회 수업시간	비용
17.0%(41명)	3~6회	35.9분	37.4만원

기본 교습과정 외에 영어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배우게 되면 영어를 접하게 되는 시간은 당연히 증가된다. <표 3>에 제시된 내용을 보면, 1회 수업시간이 35.9분이며 주당 이용 횟수가 약 3.6회로 이를 계산하면 주당 129.24분으로

시간으로 환산하면 약 2.2시간이다. 따라서 영어 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하는 유아는 2.2시간의 영어시간이 더 증가되어, 일주일에 기본 교습 과정 25시간과 합친 총 27시간 정도 영어에 노출되어 있다.



[그림 9] 월평균 기본교습비



[그림 10] 특별활동 종류별 월평균 수강료

5. 비용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월평균 기본교습비'를 알아본 결과, 50만원~79만원 미만 구간이 45.0%로 가장 많고, 30~49만원이 29.2%, 80만원~99만원이 16.7% 순으로 평균 60.6만원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추가로 영어학원에서 실시하는 영어 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 이용 교습비는 평균 37.4만원으로 다른 종류의 특별활동 교습비에 비해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4배 가까이 비쌌다.

영어학원의 월평균 기본 교습비가 평균 60.6만원에 영어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추가로 이용하게 될 경우 37.4만원이 부가된다. 이를 합치면 98만원으로, 주당 25시간의 기본교습과정 외에 2.2시간의 영어 관련 특별활동 프로그램 시간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으로 월평균 거의 100만원에 육박

③ 교재비 등 해당 교육을 수강하기 위해 지불되는 월평균 비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제외하거나 저 교습비를 말함.

하는 고액의 교습비를 지불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6. 나가며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부모들이 남과 다른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싶어 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아닌, 주 5회의 하루 5시간 정도 영어로 수업이 진행되는 영어학원에 보내는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여기서 차별화된 프로그램이란 다음 아닌, ‘영어였다. 대개 이러한 영어학원은 원어민 강사 또는 원어민 (native) 수준의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인 또는 교포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영어학원에서 지내는 시간 동안은 유아들은 영어몰입교육 환경(ESL)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상당히 많은 양이라 하겠다.

단순 비교라 무리는 있지만, 이들 영어학원 이용 유아의 영어노출량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가늠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의 영어 학습량을 살펴 보겠다. 현행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에서 정규교육으로 영어를 배우기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4학년 포함)의 영어시간은 1회 수업시간 40분의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해서 연간 68시간, 초등학교 5~6학년은 연간 102시간을 배우도록 되어 있다. 이를 주당 환산해 보면, 초등학교 3~4학년은 주당 2시간을, 초등학교 5~6학년은 주당 3시간의 영어를 배우는 게 현실이다.

수치만으로 계산해 보면, 주 5회 하루 5시간 정도 영어학원을 이용하는 유아들은 주당 25시간의 영어에 노출되는 것으로 이는 (공립)초등학교 3~4학년에 비해 주당 12.5배, 초등학교 5~6학년에 비해 약 8.3배 이상 많은 시간이다. 영어학원 유아들의 영어 노출 시간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렇게 영어몰입 환경을 자녀에게 일찍 부터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액의 수강료가 수반된다. 주당 25시간을 영어에 노출되기 위해서는 월 평균 약 60.6만원의 기본교습비가 지불되며 여기에 주당 2시간을 추가된 영어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자녀에게 제공한다면 약 37.4만원이 부가되어 월평균 거의 100만원에 이르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몇 번의 일시적인 지불이 아니라 1년 이상의 장기적, 지속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이다.

영어학원 이용 가정은 우리사회의 일부라고 치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들 가정의 영어 교육 행태를 통해 오늘날 영어가 우리사회에 미치는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 대략 짐작이 된다. 그리고 위력이 점점 커질수록 지금의 중상층 이상 일부 가정에서 하고 있는 영어를 위한 과도한 시간 투입과 고비용을 동반하는 영어몰입교육 방식—예컨대, 이 글에서 다룬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모방하려는 심리는 그 아래 계층으로 점차 확산될 수 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 영어가 자녀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력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작년 일본의 유아 영어학원의 현황을 알아보기 위해 평소 잘 알고 지내는 일본인 오오다케(大竹, おおだけ) 교수를 방문하였다. 한국의 교육현실을 잘 알고 있는 오오다케 교수는 “일본에서는 오전부터 운영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은 동경에 극히 일부에만 있고, 이러한 아동을 이용하는 아동도 그다지 많지 않아서 찾아보기 어렵다”고 하면서 그 이유로 일본은 한국과 달리 영어교육에 대한 요구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오오다케 교수는 “왜 한국 사람들은 그토록 영어에 열광하나요?”라고 되물었던 기억이 떠오른다.

조기 영어교육의 부정적인 효과를 보여주는 많

은 연구들이 나오고 있으나 현실의 부모들에게는 ‘소귀에 경읽기’처럼 보인다. 물론 영어교육 실시 시기의 적절성을 밝히는 연구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 사회가 영어에 왜 그토록 빠르게 종속되어가고 있는지 성찰하고 근원적인 원인을 진단하는 연구도 중요하고 필요하다. 오오다케 교수가 던진 질문에 제대로 답변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과열된 조기 영어교육의 열풍을 냉각시키고 바람직한 영어교육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4)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윤진·문무경·김문정·양시내(2009)의 「유아학원 이용 및 운영 실태」 IV장 유아학원 운영 실태 부분을 참조하길 바람.